

한석용 신임 용인지회장

## “협회와 회원들간의 가교역할 충실히 할 터”

▶지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회장 취임에 대한 각오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간 용인지회를 위해 발전과 화합을 선도하며 모범적인 지회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모범적인 생활관으로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독거노인 등에게 우리 회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설비인들은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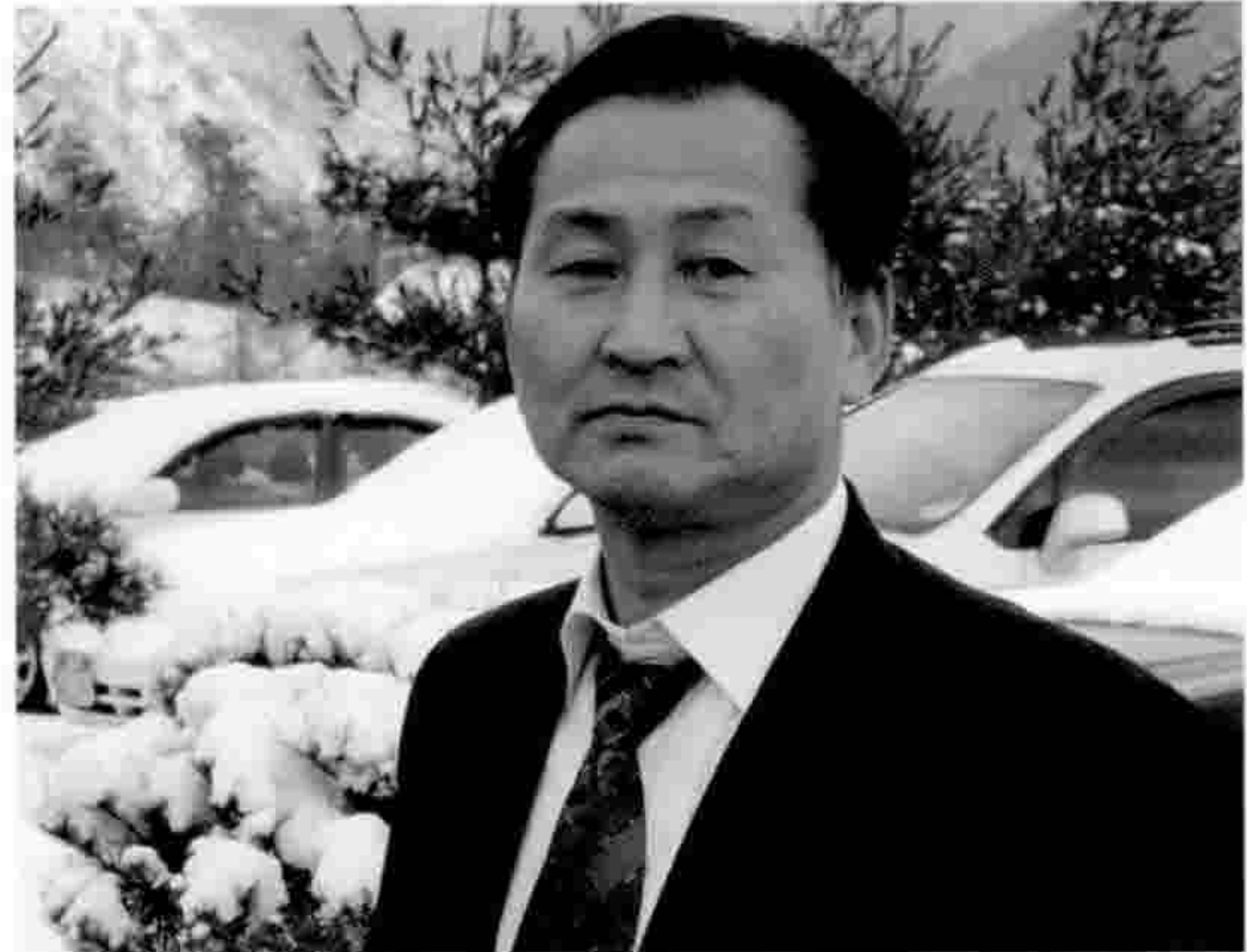
▶협회의와 관계 및 사업을 중심으로 지회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왔기 때문에 용인 터줏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2002년도에 뜻있는 설비인들과 함께 용인지회 설립을 위해서 고문으로 산파역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에서부터 설비업을 하다가 한때 썬웨이 보일러 대리점(91년~97년)을 하면서 협회를 알게 되었으며, 잘나갈 때는 일도 많이 했는데 IMF때 부도를 많이 맞아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회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총무의 역할 즉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고 월례회의 참석도 전화로 확인하고 메시지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참석률이 높아지고 신입회원들에게는 관심과 상담도 많이 하는 협회가 활성화 됩니다. 특히 회원들의 경조사에 참석을 많이 해서 친목을 쌓아야 합니다. 회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며, 협회는 자금이 있어야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의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무조건 우리 영업을 침범한다고 배척하지 말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건설경기의 불황과 무등록업체 등에 대해서 지회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공인들도 영세하지만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들이 더 영세하고 난립되어 있다 보니 하도급을 받는 우리로서는 피해를 고스라니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2007년 초에 난방 시공업과 가스 시공업 등 전문 건설업등록업체의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사무실이전신고 불이행업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물게 하였습니다. 무등록자들은 단속이나 고발보다는 협회에 등록시켜 양성해 나가야 되고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과 업역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협회와 정부, 제조업체등에 바라는 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제56조 온돌설치확인제도의 부활과 난방시공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 졌기 때문에 협회에서 시공인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확인제도로 증권을 그 지역협회에서 발급해 주게 되면 무허가근절과 대리점에서증권발급을 억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A/S를 대리점에 주다보니까 시공인들이 부품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 회사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설치나 시공을 설비인들이 기피하게 되는데 제조업체에서는 이 모습을 인식하였으면 합니다.